

60km→20km→스톱...‘모세의 기적’은 없었다

<시속>

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따라가 보니

신호 대기 차량 피해 중앙선 넘어 50m 아찔한 질주

양보 않고 끼어들기까지...사고 위험 속 간신히 도착

22일 오후 2시10분 광주시 북구 임동 119 안전센터에 “금남로 5가 화재 발생”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펌프차와 구급·구조차 7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했다. 신고 뒤 시속 60km로 달리던 소방차는 앞선 차량에 막혀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 20km로 속도를 낮췄다.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차량이 없는 도로변 차로를 택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막혀 차선을 변경해야 했다. 이번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쉽지 않았다. 가까스로 차선을 변경했지만 늘어선 차량들로 진행이 불가능했다. 결국, 임동 오거리에서 소방차는 완전히 멈췄다.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길을 터주는 승용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응급차에서 사이렌소리가 울리자마자 도로가 확 갈라지고 승용차 운전자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비켜서며 모세의 기적을 연출하는 외국 동영상 사이트 속 현장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결국,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 50m이상을 질주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사이렌 소리에 아랑곳없이 자기 신호라며 직진, 충돌 직전에 멈추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 현재까지 3.3km를 가는데 6분이 걸렸다.

임동 119안전센터 김이진(43) 구급대원은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며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기를 했지만 여전히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화재 발생 후 5분은 ‘골든 타임’으로 불린다.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한계선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 5개 소방서의 출동시간은 지난해 5분

1초. 2012년 4분56초에 비해 5초가량 늦어졌다.

올해 6월20일부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3차례 실시하고 관련 스티커 6000장을 직접 나눠주며 홍보했지만, 골든타임 사수는 여전히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전국 247곳에서 진행된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 국순련’의 하나로 진행됐지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행사였다.

한편, 도로교통법(29조)에 따르면 긴급차량 접근시 길을 터주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부과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도로여건상 피할 수 없었거나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소방차에 대한 '길터주기' 모의훈련이 22일 오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오후 2시 10분 광주 북구 임동 119 안전센터로 출발한 소방차가 화재현장인 금남로 5가역까지 가는 동안 사이렌과 경적을 울려도 앞서가던 차량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5
해질녘 17:48

달돋이 05:51
달질 17:27

가을의 마지막 '상강(霜降)'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구름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맑음	9/21	보 성 맑음	6/19
목포	맑음	10/19	순 천 맑음	9/20
여수	맑음	12/18	영 광 맑음	9/20
나주	맑음	6/21	진 도 맑음	9/20
완도	맑음	11/20	전 주 맑음	7/20
구례	맑음	5/20	군 산 맑음	9/18
강진	맑음	8/20	남 원 맑음	5/19
해남	맑음	8/20	흑산도 맑음	14/18
장성	맑음	7/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남~남서 0.5
남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28 13:56	06:51 19:13
여수	08:41 20:46	02:14 14:41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9/22	9/22	10/23	11/23	10/22	10/22	12/21

◇생활지수

	식중독	43
	운동	60
	빨래	40

통학버스 안전띠 안매면 운전자 6만원 과태료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게 된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

법안이 내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도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성이 없었다. /연합뉴스

교육부 “학교폭력 처리 담임교사는 빠져라”...일선학교 반발

담임종결 절차 생략 검토

“교육적 지도 과정 포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조정을 없애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며 ‘담임종결 절차’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적 지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광주·전남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인 이른바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안 처리 전 확인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도 이에 응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봤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담임교사가 화해를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양측에 중용하면서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종결 처리 이후 피해자 측이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 담임종결 절차가 다툼을 조정하는 데 오히

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처리리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 버리고 학폭위에서 이를 처음부터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3일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담임종결로 처리됐는데 가해자 측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 측이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담임종결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종결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형벌적

조치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면 학생간에 발생한 아주 사소한 다툼까지도 모두 학폭위에서 다루지게 되고 담임교사가 개입해 이를 조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한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교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어 충분히 화해가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데도 개입하지 않고 뒷집만 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있는 절차마저 없애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대병원 새 병원장에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 임명

전남대병원 제31대 병원장에 윤택림(56) 정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전남대병원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된 윤택림 교수를 22일 차기 병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17년 10월21일까지 3년간이다.

윤택림 신임 병원장은 지난 1984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에서 1989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윤택림 병원장은 1992년 일본구루메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수, 1993년 전남대의과대학 정형외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존스홉킨



스대학 정형외과에서 연수했다.

윤택림 병원장은 두 부위 최소침습 인공고관절 수술법 등 40여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퇴골 두 무혈성 괴사증·고관절염·인공관절 치환술·고관절 골절·비구이형성증 수술을 주도하며 2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국제고관절학회 정회원으로서 선출된 윤택림 병원장은 국내외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